

審判의 우선處理指針 통보

處理對象 · 決定方法등 마련, 2. 17부터 施行

特許廳은 지난 2月 6日 審判 및 抗告審判의 우선 處理指針 을 마련, 통보했다.

이 指針은 特許廳 88年度 第 3次 工所權 운영심의 위원회의 審議結果로 금년 2月 17일부터 施行하기로 했다.

그 全文을 소개하다.

◎ 審判 및 抗告審判의 우선 處理指針 ◎

審判 또는 抗告審判은 그 請求의 順位에 따라 審理 處理함 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請求에 우선하여 審理, 處理할 수 있다.

1. 우선處理 對象

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事件으로서 특히 緊急處理를 要하는 것으로 認定되는 것

- 1) 방위산업 분야
- 2) 공해방지에 특히 유용한 것
-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職務發明으로서 公益에 관련되는 것
- 4) 工業所有權 분쟁으로 인하여 社會의 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거나 公益에 크게 관련되는

것

나. 工業所有權 관리법에 의하여 審查官이 無效를 請求한 事件

다. 聯合商標登録出願이 있는 商標登録 取消審判 事件

라. 審判請求의 이해관계 소멸 또는 대상 權利의 소멸등으로 그 請求가 부적합한 것으로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될 것

마. 先請求의 事件에 關聯되어 병합심리를 要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우선處理 決定方法

第1項 各號의 해당 여부와 긴급處理의 필요성 여부등 당해 사건의 會議制에서 결정한다.

3. 적용시기

1) 1988年 2月 17일부터 (抗告 1366—203(82. 6. 28)은 폐지) 施行한다.

中共과 工業所有權 交流 열릴 展望

中共, 對韓工所權出願許與여부 問議

우리나라와 中共양국간에 特許權과 商標權등 工業所有權 交流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特許廳에 따르면 中共은 지난 2월 대외무역촉진부의 산하기관으로 工業所有權登録 업무를 관장하는 홍콩소재 專利代理有限公社를 통해 AIPP(國際工業所有權보호협회) 韓國지부(지부회장 南啓榮변리사)에 中共국적소유자가 특허권과 상

표권을 우리나라 特許廳에 직접 出願했을 때 이를 접수, 登錄시켜줄 것인지의 여부를 문의해 왔다는 것이다.

中共이 국내에 工業所有權을 出願한 것은 지난 86년 홍콩거주 中共인이 「리지고」라는 商標를 出願, 登錄된적이 있으나中共거주 中共인이 직접 工業所有權出願을 한 적은 아직 없었다. (※)